

## 庾信 後期詩의 풍격

— 鄉關之思 작품을 중심으로 —

이 국 회\*

### <目 次>

- |                     |                   |
|---------------------|-------------------|
| I. 서론               | IV. 유신 후기시 풍격의 의의 |
| II. 유신 후기시 풍격의 유형   | V. 결어             |
| III. 유신 전후기시의 풍격 비교 |                   |

### I. 서론

庾信은 일찍이 양나라에 출사하여 徐陵과 함께 이름을 떨쳤으나 그의 작품 가운데 일부는 ‘淫放’하고 ‘輕險’한 경향을 띠고 있어 “辭賦의 죄인”으로 불리기도 하였다.<sup>1)</sup> 梁元帝 承聖 3년(554) 사신으로 파견되어 갔던 西魏에서 뜻하지 않게 억류되고 그 후 굴절된 삶을 살게 되면서 작품 세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그만의 독특한 풍격과 시풍이 형성되게 된 것은 북방이라고 하는 변화된 환경과 풍토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줄곧 궁정에서 생활하던 그가 이 때 비로소 일반 사회와 접할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북방의 경물은 그의 시야를 넓히고 북방의 정서는 그의 애국사상과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북조의 민가와 음악, 문학도 그의 시풍에 영향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周書》卷41, <庾信傳>(台北 鼎文書局, 1970), 744쪽 “其體以淫放爲本, 其詞以輕險爲宗…… 若以庾信方之, 斯又詞賦之罪人也”

을 끼쳤다. 그 결과 북조의 淸氣는 그가 지냈던 남조에서 추구하던 화려한 시풍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이와 동시에 남조 문학을 모방하는데 그쳤던 북조 문단에 생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유신 후기시 중 ‘鄉關之思’를 표현한 작품에 어떠한 풍격 유형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풍격 유형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지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유신 후기시 풍격의 유형

유신의 후기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내용, 형식, 제재, 기교 등이 점차 참신해졌고 淸新自然、淸新枯淡、蒼涼悲壯、剛健適逸、深嚴渾成 등의 다양한 예술 풍격을 갖추게 된다.

### 1. 淸新自然

유신의 후기시는 성율과 사조의 형식미를 추구하면서도 청신함과 자연미를 잃지 않았다. 청신은 형식상으로 산뜻하고 유연하며 막히거나 어색하지 않고 내용상으로도 아름다운 의경과 意象으로 작품에 새로운 생기를 부여한 유신의 대표적인 풍격으로 볼 수 있다.<sup>2)</sup> 또한 그의 후기시는 기교를 부린 흔적이 없이 자연스러웠고 단조롭거나 경박하지 않았으며 구상면에서도 성숙된 면모를 보여 주었다. 고아한 시어에 속어를 섞어 썼고 매끈한 말을 회삽한 말로 조절하였으며 그 공졸을 문제 삼지 않았다. 전고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면서<sup>3)</sup> 이와 동시에 淸宋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經史

2) ‘청신’은 유신 전후기의 경물을 묘사한 대다수 작품에 두루 나타난 풍격이다. 특히 후기시의 경물 묘사는 서정과 조화를 이루어 더욱 생기를 띠게 된다. 즉 聲色과 性情을 결합하여 개인적 정서를 표현하는 데 성공하였다. 杜甫가 <春日憶李白>에서 말한 “청신함은 유개부요”(淸新庾開府)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에 나오는 고어를 일상 생활의 묘사에 운용하였고 우연한 순간 장면을 적절히 포착하여 청신함과 자연스러움이 배어나게 하였다.

務農勤九穀	농사에 힘써 구곡을 키우려고
歸來嘉一塵	전원에 돌아와 띄기밭에 만족한다
穿渠移水碓	도랑 트고서 물레방아 돌리고
燒棘起山田	가시밭 태워서 산전을 일군다
樹陰逢歇馬	나무 그늘에 말이 쉬고 있고
魚潭見洒船	물고기 노는 못에 배 떠 있다
苦李無人摘	쓴 오얏은 따 가는 이 없고
秋瓜不值錢	가을오이는 값나가지 않는다
杜鷄新欲伏	제사에 쓸 닭이 새로 알을 품고
原蠶始更眠	여름누에는 방금 다시 잠들었다
今日張平子	이제는 장평자가
翻爲人所憐	도리어 남의 동정 받겠구나

(〈歸田〉)

여기서 은사의 청빈하고 쓸쓸한 생활을 구어체로 쓴 듯 하지만 그 중에 王戎이 길가의 쓴 오얏을 따지 않았고 吳王이 가을날 길가에 자라난 날 외를 씹지 않았다는 전고를 담고 있다. 이처럼 유신은 경서에 나오는 전고를 속어에 대입시켜 일상 생활을 표현하였다.

舟子夜離家	벃사공은 밤중에 집을 나서
開船望月華	노 저으며 달무리 바라본다
山明疑有雪	산이 밝아 눈이 쌓인 듯하고
岸白不關沙	물가 희지만 고운 모래 아니다
天漢看珠蚌	은하수는 진주조개로 보이고
星橋似桂花	못별들은 마치 물푸레꽃 같다
灰飛重暈闕	재 날자 겹달무리 이지러지고

3) 유신은 전고를 사용하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경지에 다다랐다. 沈德潛 《古詩源》(台北: 華正書局, 1975), 349쪽 “使事無迹”

莫落獨輪斜 莫萊 잎 떨어지며 외로운 달 기운다

(<舟中望月>)

이 시에서도 경물의 묘사와 서정이 모두 사실적이고 수식이 가해지지 않아 자연스러운 흥취를 자아냈다. “山明疑有雪, 岸白不美沙” 중에 앞 구절의 ‘疑’는 착각이어서 뒷 구절에서 바로 부정하고 있다. 여기서 달을 묘사하고 있지만 오히려 달빛만 가득하다. 지극히 평범한 말로 달빛을 바라보는 사람의 감흥을 묘사하고 있어 기교를 부린 흔적이 없다.

一面還千里      한번 만나고 천리길 돌아가니  
相思那得論      그리움을 어찌 말로 다하리오  
更尋終不見      다시 찾아도 끝내 보지 못하니  
無異桃花源      도회원과 다를 바가 없어라

(<徐報使來止得一相見>)

스무 자에 불과한 이 시에서 유신은 청신한 이미지를 진지하면서도 무겁지 않게 잘 표현하였다.

蕭瑟風聲慘      쓸쓸한 바람소리에 마음 아프고  
蒼茫雪貌愁      황량히 날리는 눈 처량도 하구나  
鳥寒棲不定      새는 추워서 등지 정하지 못하고  
池凝聚未流      못물은 얼어붙어 흐르지 않는 듯  
蒲城桑葉落      포주성에 뽕잎이 떨어지고  
灞岸菊花秋      패릉 언덕에 국화가 한창이라  
願持河朔飲      하삭의 술을 가져다가  
分勸東陵侯      동릉후에게 나눠드리고자 한다

(<就蒲酒使君乞酒>)

전란의 와중에 가산을 탕진하고 나그네 신세가 된 유신은 자신의 문필에 의지해 북조의 왕공과 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시 중에

“願持河朔飲，分勸東陵侯”라는 구절은 동릉후가 가난하여 외를 심은 전고를 사용하여 유랑인의 처경을 암시한 것이다. 그리고 유신은 전원 산수의 정경을 묘사하면서, 소박하면서도 운치 있는 정경을 청신하고 자연스러운 풍격으로 잘 표현하였다.

寂寥尋靜室	적막한 정실을 찾아가노라니
蒙密就山齋	어렴풋이 산재에 다다른다
滴瀝泉澆路	떨어지는 샘물이 길을 적시고
穹窿石臥階	넓적한 바위가 섬돌에 누웠다
淺槎全不動	작은 뗏목은 움직이지 않고
盤根惟半埋	나무 뿌리는 반쯤만 묻혔다
圓珠墜晚菊	이슬은 때늦은 국화에 맺히고
細花落空槐	불꽃은 앙상한 왜나무에 떨어진다
直置風雲慘	바로 풍운의 참변을 만났으니
彌憐心事乖	어그러진 심사 더욱 슬퍼진다

(〈山齋〉)

이 시는 도입부에서 느껴지는 그윽한 분위기에 쓸쓸하고 착잡한 시인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여기서 시인은 조용하고 탈속적인 아름다운 경관으로 몸소 이러한 곳을 가보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그윽한 정경을 묘사하지 못했을 것이고 내심의 심한 고통이 없었다면 이러한 경지의 진수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에 전반적으로 일반 세인들의 표현 방식을 따르지 않는 청신하면서도 자연스런 풍격이 잘 드러나 있다.

## 2. 清新枯淡

굴절된 삶을 살아야 했던 유신은 만년에 접어들면서 사상적으로 더욱 진지해졌고 문학적으로도 더욱 세련된 필치로 한층 성숙된 면모를 보여주었다.<sup>4)</sup> 특히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경물을

4) 揚慎, 《升庵詩話》, 《歷代詩話續編》(台北: 木鐸出版社, 1983), 815쪽: “子山

성정으로 변화시키는 문학적 재능은 일상 생활을 묘사한 시에서 잘 드러났다.

蕭條依白社	쓸쓸히 백사에 머물러 있노라니
寂寞似東臯	적막함이 마치 동편 언덕 같다
學異南宮敬	배운 것은 남궁경숙보다 뛰어난데
貧同北郭騷	가난하기는 북곽소와 마찬가지로
蒙吏觀秋水	몽 땅의 관리는 가을 강물 바라보고
萊妻紡落毛	노래자의 아내는 깃털로 베를 짠다
旅人嗟歲暮	나그네는 저무는 한 해를 탄식하고
田家厭作勞	농가에서는 힘든 일에 지쳐 있다
霜天林木燥	날씨는 추워지고 수목은 앙상한데
秋氣風雲高	가을 기운 돌아 바람 불고 구름 높다
栖遑終不定	이리저리 헤매다 끝내 머물지 못하니
方欲涕沾袍	눈물 흘러 옷자락을 적시려 한다

(〈和裴儀同秋日〉)

유신은 북방의 스산하고 생기없는 경물에 자신의 처량하고 적막한 심정을 이입시켰다. 눈앞에 완연히 드러나는 한 폭의 메마르고 쓸쓸한 가을 정경에서 ‘霜天’과 ‘秋林’의 건조함을 묘사하였는데, 이는 곧 시인의 초췌한 심정을 상징한 것이기도 하다.

蒼茫望落景	창망한 저녁 경치를 바라보자니
羈旅對窮秋	나그네 신세로 늦가을을 맞는다
賴有南園菊	남쪽 뜰에 남은 국화에 기대어
殘花足解愁	시든 꽃이지만 슬픔을 달래본다

(〈秋日〉)

이 시는 비록 편폭이 짧지만 情景이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 늦은 가을

之詩, 綺而有質, 艷而有骨, 清而不薄, 新而不尖, 所以爲老成也”

에 나그네 신세로 가을 정경을 대하면 충분히 수심에 잠길 만한데 남쪽  
 들의 국화를 바라보게 되면 수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足解愁는  
 의식적으로 ‘豁達의 반어를 사용한 듯하지만 이 또한 심경의 情과 경관의  
 景이 하나 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 밖에 청  
 신, 고담한 풍격의 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淒清臨晚景	처량하게 저녁 경치를 마주하고
疏索望寒階	쓸쓸히 차가운 섬돌을 바라본다
濕庭凝露	젖은 뜨락에는 이슬이 엉겨 있고
搏風卷落槐	회오리바람은 잎 진 괴목 흔든다
日氣斜還冷	햇살이 기울며 날씨도 추워지고
雲峰晚更霾	구름 낀 봉우리 날 저물자 더 꺼명다
可憐數行雁	가련하여라 줄지어 나르는 기러기
點點遠空排	점점이 먼 하늘로 날아만 간다

(〈晚秋〉)

이 시는 다소 추상적인 느낌을 주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보편적으로 널  
 리 애송될 수 있다. 이 시의 경물은 늦가을의 悲愁와 조화를 이루고 이와  
 동시에 작품 전체의 비수와 관련되어 있다. 즉 가을에서 흥을 일으켰으나  
 도리어 흥이 일어나 가을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함으로써 詩  
 情에 畫意가 물씬 풍긴다.<sup>5)</sup>

杖鄉從物外	나이 육십에 물외 세계 좇으려고
養學事閑郊	양생술 닦으며 교외에서 지낸다
窮愁方汗簡	수심이 차면 죽간을 말리고
無遇始觀爻	뜻대로 안되면 점괘를 본다
谷寒已吹律	계곡이 추워 이미 음률을 불어 넣었고
簷空更剪茅	처마가 비어 새로 띠풀을 잘라 이었다

5) 尹濤, 〈庾信與南北朝後期詩歌〉, 《中華同人學術論集》(北京 中華書局 2002), 188쪽 참조.

樵隱恒同路	나뭇꾼과 은사가 늘 같은 길로 다니고
人禽或對巢	사람과 짐승이 터러 잠자리 마주한다
水蒲開晚結	물가의 부들은 그늘을 거두었고
風竹解寒苞	풍죽은 차가운 덩불이 성글어졌다
古槐時變火	늙은 왜나무에 때로 불이 일어나고
枯楓乍落膠	마른 단풍나무 언듯 나무진 떨어뜨린다
倒屣迎懸榻	신을 끼꾸로 신은 채 지기를 맞이하고
停琴聽解嘲	거문고 타기 멈추고 <해조>를 듣는다
香螺酌美酒	향그린 소라 술잔에 미주를 따르고
枯蚌藉蘭殼	마른 조개껍질 쟁반에 살진 안주 담는다
飛魚時觸釣	날치가 때때로 낚시에 걸리고
翳雉屢懸庖	꿩도 자주 부엌 벽에 걸린다
但使相知厚	다만 서로 깊이 알고자 한다면
當能來結交	교유를 맺으러 올 수 있으리

(〈園庭〉)

이 작품에 나타난 처량하고 소슬한 풍격은 시인의 억울하고 괴로운 심경을 잘 나타내고 있다.<sup>6)</sup> 이처럼 일상적인 의상, 정감, 언어 등을 조화롭게 결합시킨 후기시에서 비로소 내용상의 청신을 추구할 수 있었다.

### 3. 蒼涼·悲壯

창량, 비장은 유신 후기시 중에 표현된 우울한 색채와 비극적 정서를 가리킨다. ‘창량’은 시대적 풍격이 시인의 처경, 창작 경험이 한데 어우러져 나온 결과이다. 한편 ‘비장’에서 드러난 그의 우울한 성격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촉발된 것이다.

胡笳落淚曲	호가는 눈물 떨구는 곡조
羌笛斷腸歌	강적은 애간장 끊는 노래

6) 葛曉音, 《八代詩史》(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9), 300~301쪽 참조.

纖腰減束素	가는 허리 더욱 줄어들고
別淚損橫波	이별 눈물에 눈빛 흐려졌다
恨心終不歇	한스러운 마음 그치지 않는데
紅顏無復多	아름다운 얼굴 오래가지 않으리
枯木期填海	고목으로 바다를 메우고
靑山望斷河	청산으로 황하를 끊고 싶어라

(〈擬詠懷〉7)

이 시에서는 북방의 胡笳와 羌笛의 처량함을 묘사하여 남방 소식의 단절로 인한 고통, 이별의 슬픔과 한이 사무쳐 점차 망가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精衛填海”、“華山斷河”라는 전고를 운용하여 실현할 수 없는 현실의 소망에 대한 깊은 한을 묘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대우를 운용하여 이미지가 매끄럽게 연결되지는 않으나 일관되게 나타나는 축급한 어조로 내적 절망감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搖落秋爲氣	가을 기운에 초목은 떨어져 내리고
淒涼多怨情	처량한 신세여 怨情이 많기도 하다
啼苦湘水竹	흐느끼는 소리에 상수 대나무 시들고
哭壞杞梁城	울부짖는 소리에 기량성이 무너진다
天亡遭憤戰	하늘이 망하게 하여 분한 싸움 닥치고
日蹙值愁兵	햇빛이 흐려져서 병사들은 고전한다
直虹朝映壘	곧은 무지개 아침에 보루를 비추고
長星夜落營	살별이 밤중에 군영 위로 떨어진다
楚歌饒恨曲	초나라 노래에 한 맺힌 곡조 넘치고
南風多死聲	남방의 노래엔 죽어가는 소리 많다
眼前一杯酒	눈 앞에 한 잔의 술만 있다면
誰論身後名	누가 죽은 후에 이름을 따졌던가

(〈의영회〉11)

서위가 양나라에 진공하였을 때 유신은 마침 서위에 사신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강릉 함락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으나 전고를 운용하여

당시의 역사적 변란을 개괄하였다. 사용한 전고에 내재된 이미지를 전체 詩情에 이입시킴으로써 역사적 幻影과 비통한 현실이 적절히 융합된 가운데 애도의 뜻을 나타냈다. 편폭이 짧은 시에 간결하고 평이한 시구로 대규모의 역사 사실을 개괄함으로써 그의 내면적 정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玉關道路遠	옥관에 가는 길 멀기도 하고
金陵信使疏	금릉 사신은 발길이 끊어졌다
獨下千行淚	홀로 먼길 떠나 눈물 흘리며
開君萬里書	만리 밖에서 온 편지 읽는다

(〈寄王琳〉)

유신은 옛 친구에게서 온 편지를 읽으면서 느낀 소회를 스무 글자에 응집시켰다. 여기에 풍부한 감정으로 형상성을 살려 영웅이자 친구인 왕림에 대한 깊은 경의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북조에 억류된 자신의 신세에 대한 무한한 슬픔과 고국에 대한 깊은 사념을 담고 있다. 여기서 유신 후기시의 주된 특색이 더 이상 청신에 머물지 않고 어느덧 杜甫가 <戲爲六絕句>에서 말한 바 있는 “구름을 타고 넘는 씩씩한 필치에 그 뜻 거침없다”(凌雲健筆意縱橫)라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剛健·適逸

작품의 剛柔는 작가의 개성과 기질 이외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유신은 남조문학 전성기의 문학적 소양을 갖추었고 북방에 온 이후 창작 내용이 더욱 풍부해졌을 뿐만 아니라 북방 문화의 긍정적 요소를 받아들여 강건, 適逸한 풍격을 나타냈다. 그는 북방에서 여러 차례 출정하는 사람을 송별하고 무예 장면을 참관하고 사냥에 나섰으며 자신도 한 차례 北齊 토벌에 나서기도 해 몸소 군려 생활을 체험하였으므로 그가 표현한 변세의 장면은 대체로 진실되고 사실적이다.<sup>7)</sup>

7) 북조의 변세시는 비록 剛直한 기운이 있었으나 투박하고 생경하였으며 남조의

KCS I

---

변세시는 묘사에 뛰어났으나 상상에서 나온 말이 많았다.

日晚荒城上	저녁 무렵 황폐해진 성루에서
蒼茫餘落暉	장막하게 저녁 노을 바라본다
都護樓蘭返	도호는 누란에서 돌아오고
將軍疏勒歸	장군은 소륵에서 돌아온다
馬有風塵氣	말들은 고단한 기색을 띠었고
人多關塞衣	사람들 대개가 전투복 입었다
陣雲平不動	진영에는 진운이 잠잠하지 않고
秋蓬卷欲飛	가을 갈대는 말려서 날릴 듯하다
聞道樓船戰	길가다 전함에서의 싸움을 들으니
今年不解圍	올해에도 진선이 풀리지 않겠다

(〈의영회〉17)

북조의 군사들이 황혼 무렵에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돌아오는 정경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강남의 고국을 위하여 전쟁에서 보답할 수 없었던 사실에 대해 회한의 감정을 드러냈다. 또한 격한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웅건한 어세를 드러내 보여주기도 하였다.

六國始咆哮	육국이 처음으로 포효하게 되고
縱橫未定交	종횡으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欲競連城玉	이어진 성벽의 옥을 다투려고 하니
翻徵縮酒茅	도리어 군대를 징발하려고 한다

(〈의영회〉15)

被甲陽雲臺	무장하고 있는 양운대에
重雲久未開	질은 구름 오래도록 걷히지 않아
雞鳴楚地盡	닭이 울자 초의 진영 함락되고
鶴唳秦軍來	학은 진군의 침공에 목놓아 운다

(〈의영회〉27)

이 시에서 북방 변세의 정경을 묘사하면서 유량인의 서러움을 토로하였다. 유신은 이러한 정감에서 우러나온 슬픔을 비탕으로 강건、適逸 풍격

의 심미적 의의를 더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5. 深嚴渾成

유신 후기시 중의 몇몇 장편 述懷詩는 대우와 전고를 대량 사용하여 복잡한 감정을 시원스러우면서 완곡하게 잘 표현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심엄하면서도 혼성한 풍격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장편 술회시는 때로 應酬詩의 성격을 띠고 있어 상대방에게 應酬、贈答、稱頌하는 가운데 그 중에 자신의 신세와 심정을 드러냈다. 심지어 應制、歌功、頌德하는 작품에도 잠재의식 속에 자리한 슬픔이 무의식 중에 밖으로 표출되었다.

危邦久亂德	위험한 나라 오래도록 덕을 헤쳐서
天策始乘機	묘책으로 비로소 기회를 얻었다오
九河聞誓衆	구하에는 맹세하는 소리 들려오고
千里見連旂	천리를 이어서 깃발이 드리웠다
虢亡垂棘返	괘이 망하여 수국은 되돌아가고
齊平寶鼎歸	제를 평정하고 보정을 되찾았다
久弊風塵俗	풍속이 오래도록 폐하여 있으니
殊勞關塞衣	전장터에 몸 담은 지 오래되었다
絆驥還千里	말고삐 돌려서 천리를 돌아오니
垂鵬更九飛	앉아 있던 봉은 아홉 번 날았다
猶憐馬齒進	말의 치아 빠져서 가련히 여기니
應念節旄稀	응당 절모는 드물게 되었으리라
迴軒入故里	수레를 돌려서 고향에 돌아오니
園柳始依依	정원의 버들 그제야 늘어져 있고
舊竹侵行徑	예전의 대나무는 오솔길을 덮고
新桐益幾圍	새로 자란 오동나무 아름답드리로다
寒谷梨應重	추운 계곡의 배 잘 익었을 것이고
秋林栗更肥	가을 숲의 밤은 더욱 살져 있겠다
美酒還參聖	좋은 술 마시며 또한 덕을 닦으니
雕文本入微	세겨진 글자 본시 깊은 뜻 있었다

促歌迎趙瑟	노래 불러 조나라 비파 맞이하고
遊絃召楚妃	현악을 연주하여 초비를 불러온다
小人司刺學	소인은 자기를 맡게 되었고
明敎實濫吹	명양은 실로 남취가 되었다
南部治都尉	남부는 도위가 다스리고
軍謀假建威	군참모는 건위를 빌린다
商山隱土石	상산에는 은사석이 있고
丹水鳳凰磯	단수에는 봉황기가 있다
野亭長被馬	들판에서 정장은 말 타고
山城早掩扉	산성은 일찍이 엄폐되어
傳呼擁絳節	웅강절만 전해져 온다오
交戟映彤闈	부딪히는 칼은 동위에 비친다
遂令忘楚操	이어서 조나라 절조를 잊으니
何但食周薇	어찌 주나라 고사리만 먹으리
三十六水變	삼십 육 수가 바뀌고
四十九條非	사십 구 조가 어긋나
丹竈風煙歇	부뚜막에 바람연기 그치고
年齡蒲柳衰	나이는 갯버들처럼 늙어져
同僚敢不盡	동료는 감히 해내지 못하거늘
疇日懼難追	날이 있어도 따르기 어렵도다

(〈謹贈司空淮南公〉)

이 시는 본래 淮南公 元偉를 칭송하는 응수시이다. 북제에 사신으로 갔던 원위가 절조를 지킨 것을 자신과 비교하며 恭敬、頌祝、自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위는 북제에 사신으로 갔다가 구금되었는데 2년 후에 북주가 북제를 평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 유신은 자신의 처지를 그와 견주어 보면서 더욱 수치스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이 밖에 〈正旦上司憲府〉、〈和張侍中述懷〉、〈傷王司徒喪〉 등은 모두 술회하는 가운데 응수하고 있다. 전편이 대우로 되어 있고 전고를 많이 썼지만 성정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어조는 전아하고 장중하며 시어는 자연스럽고 정교하다.<sup>8)</sup>

### Ⅲ. 유신 전후기시 풍격의 비교

유신이 남조 양에서 지은 전기시는 당시 문학 형식의 영향을 받아 綺麗、輕靡한 경향을 띠었는데 제재와 내용의 제약을 받은 탓에 아직 그만의 풍격이 발현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의 몇몇 청신한 작품에 대하여 말하자면 성율과 수사 기교를 중시하여 같은 시기의 다른 작가들의 풍격과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즉 여성적 묘사로 필치가 부드러웠고 구성이 단조로우면서도 섬세한 풍격이 두드러졌지만 전체적으로 수사에 치중하여 卑弱、柔美하였다.

樂宮多暇豫	長樂宮에 불거리가 많으니
望苑暫迴輿	博望苑에 잠시 수레 멈춘다
鳴笳陵絕浪	피리소리가 물결 일게하니
飛蓋歷通渠	날것들 물위를 날아다닌다
桂亭花未落	계정의 꽃 아직 지지 않았고
棟門葉半疏	동문의 나뭇잎 반 째 돌아다
荷風驚浴鳥	연꽃 바람 물새를 놀래키고
橋影聚行魚	다리 그림자는 물고기 모은다
日落含山氣	지는 해는 산 기운을 머금고
雲歸帶雨餘	구름은 다가와 남은 비 뿌린다

(<奉和山池>)

이 시는 비록 “荷風驚浴鳥 橋影聚行魚”와 같은 佳句가 있어 청신함이 엿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기교에 치중하여 내용이 결여된 綺麗한 작품이다. 그러나 유신의 전기 작품 중에는 다른 풍격의 시들도 있다. 예를 들면 <將命使北始渡瓜步江>、<入彭城館>、<將命至鄴>、<將命至鄴剛祖正員>、<反命

8) 葛曉音, 앞의 책, 304~305쪽 참조.

河朔始入武州> 등 다섯 수는 기엄한 작품이 아니라 장중하면서도 격식을 갖춘 작품들이다. 이러한 작품에는 이미 남조의 綺靡、婉約한 정서와 북방의 豪邁、悲壯한 기풍이 결합되어 있다. 그 중 전형적인 작품으로 <燕歌行>이 있는데 초기의 <奉和示內人>、<和詠舞> 등의 시와는 구별된다.<sup>9)</sup>

代北雲氣晝昏昏	대북에 구름 끼어 낮에도 어둑어둑
千里飛蓬無復根	비몽은 뿌리 없이 천리를 날아간다
寒雁邕邕渡遼水	기러기 웅웅거리며 요수를 건너고
桑葉紛紛落薊門	뽕잎은 어지러이 삼주문에 떨어진다
.....	
春分燕來能幾日	제비 돌아오는 봄날은 머지 않았고
二月蠶眠不復久	이월의 누에 잠도 오래 가지 않겠다
洛陽遊絲百丈連	낙양에는 유사가 어지러이 날리고
黃河春冰千片穿	황하의 얼음 녹아 산산이 흩어진다
.....	

(<연가행>)

변세	蒼茫、闊大	(북)
규원	柔婉、飄逸	(남)

이것은 유신 전기시에도 색다른 풍격의 작품이 나타났음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그의 전기 작품의 풍격이 기엄、유미하였다고 몽뚱그려 말할 수 없다.<sup>10)</sup>

유신의 후기시는 생활 환경과 북방 문화, 북방 만가의 영향을 받았다.

9) <和詠舞>、<奉和示內人>은 수사가 화려하고 내용이 빈약한 奉和、應制의 작품이다.  
 10) 陳洪宜, <庾信前期作品考辨>, 《文史》27(北京 中華書局 1986.12), 226 ~227 쪽 참조.

그리고 어의가 강건하고 기질을 중시하는 북방 문풍은 그의 작품에 원래 있던 유미한 풍격을 떨쳐버리게 하였다. 따라서 전기 작품과 비교해 볼 때 서로 판이하게 달라 보인다. 그러나 후기에도 艷情詩를 지은 적이 있는데 <和趙王看伎>、<奉和趙王美人春日> 등은 이러한 부류의 대표작이다.

綠珠歌扇薄	녹주는 선박 노래 부르고
飛燕舞衫長	비연은 장삼 춤을 춘다
琴曲隨流水	거문고 소리 흐르는 물 따라가고
簫聲逐鳳凰	피리 소리 봉황을 쫓는 듯하다
細縷纏鐘格	가는 밧줄은 종격을 휘감았고
圓花釘鼓牀	둥근 복채는 북판을 올린다
懸知曲不誤	뜻밖에 곡조가 틀리지 않았으니
無事畏周郎	주郎을 두려워할 일 없겠도다

(<和趙王看伎>)

直將劉碧玉	유벽옥이 달려오고
來過陰麗華	음려화가 온 듯하다
祇言滿屋裏	다만 온방에 꽃 피어
併作一園花	뜰 가득 꽃인 듯하다
新藤亂上格	새 등걸은 격자에 늘렀고
春水漫吹沙	봄물은 천천히 모래 밀친다
步搖釵梁動	보요채는 흔들거리고
紅輪轆角斜	홍륜은 모서리에 돌렸다
今年逐春處	올해 봄 지낼 곳을 찾아
先向石崇家	먼저 석송의 집으로 향한다

(<奉和趙王美人春日>)

이 두 수는 진부한 체재를 사용하고 기묘한 시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sup>11)</sup> 유신이 북조에서 지은 작품은 사상과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풍

11) 흔히 ‘綺艷’、‘輕艷’、‘纖巧’ 등으로 유신의 작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근거로 삼지만 이것 또한 유신 전후기시에 두루 나타나는 주요 풍격의 하나이다.

격이 즉각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또한 민가의 강건하고 청신한 색채를 지닌 <怨歌行>도 기염이라는 전기의 풍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러한 시들이 후기시의 면모와 성과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결국 후기에도 서로 다른 풍격의 작품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sup>12)</sup> 요컨대, 유신의 전후 두 시기의 작품은 서로 다른 시기의 다른 처경과 심리적 상황하에서 문자의 성음과 대우의 운용을 달리하여 풍격상에 차이가 있다. 비록 약간의 예외가 있었지만 대체로 전기의 기염·청신이라는 바탕 위에 후기 특유의 요소가 보태어져 풍부하고 다채로운 풍격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전기	綺艷、清新、壯重…
후기	綺麗輕靡、清新自然、清新枯淡、蒼涼悲壯、 剛健適逸、深嚴渾成、富贍博雅…

#### IV. 庾信 후기시 풍격의 의의

유신의 후기 창작은 소재와 체제, 기교면에서 전기보다 훨씬 다양해졌다. 정서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보다 완숙해진 그의 내면 세계가 후기시에 잘 표현되었다. 가문의 학문 환경, 자신의 문학적 소양, 자신의 복잡학업한 처지는 유신으로 하여금 다양한 풍격의 작품을 집대성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신 후기시의 풍격은 일정 부분 남북조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남북조의 정치적 대립과 지리적 환경의 현저한 차이는 남북 문학에 판연히 다른 양상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저마다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12) 葛曉音, 《漢唐文學的嬗變》(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0), 229쪽 참조.

《北史·文苑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로 숭상하는 것이 차이가 있었다. 강좌는 공상(음악)이 발달하여 청기를 귀하게 여겼고 하삭은 어의가 강건하고 기질을 중시하였다. 기질은 사리가 문사를 이기는 것이고 청기는 수사가 생각을 넘치는 것이다. 사리가 깊은 것은 실용하기에 편리하고 수사가 화려한 것은 음미하기에 적절하다. 이것은 남북 시인들의 특질을 대략 비교한 것이다.(彼此好尚, 互有異同 江左宮商發越, 貴於清綺, 河朔詞義貞剛, 重乎氣質, 氣質則理勝其詞, 清綺則文過其意, 理深者便於時用, 文華者宜於吟味, 此南北詞人得失之大較也.)<sup>13)</sup>

유신은 입북하여 관서의 문풍을 강남과 관동의 기묘한 풍격으로 나아가게 하였으며, 또한 강남, 관동, 관서에서 숭상하였던 각기의 다른 문풍을 융합하여 발전시켰다.<sup>14)</sup>

聲律、辭藻、清新	남조의 장점
深壯	북조의 장점

유신 후기시 풍격이 육조의 문단에서 두드러지게 된 까닭은 같은 시기의 다른 작가가 이를 수 없었던 필치와 의경을 지녀서 아름다운 수사 가운데 장량하고 강건한 기운이 배어났기 때문이다. 沈德潛은 《說詩晬語》에서

제일의 흥금과 제일의 학식, 여기에는 제일 훌륭한 시…….옛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굴원 이후 몇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有一等襟抱, 第一等學識, 斯有第一等眞詩……. 古來可語此者, 屈大夫以下, 數人而已)<sup>15)</sup>

13) 《北史》卷83, <文苑傳>(台北 鼎文書局, 1970), 2781~2782쪽.

14) 林怡, 《庾信》(瀋陽 春風文藝出版社, 1999), 84~85쪽 참조.

15) 《清詩話》(台北 西南書局, 1979), 472쪽 참조.

유신은 남북조의 문풍을 융합하고 굴원 이후 각 조대의 우수한 창작 수법을 계승함으로써 문질이 검비된 풍격을 이루게 되었고,<sup>16)</sup> 더 나아가 雅俗、典麗、繁約、隱顯 등의 서로 다른 언어적 풍격을 결합함으로써 서로 다른 풍격이 혼연일체가 되게 하였다.

文	雅	典	繁	隱	자유, 다양, 조화
質	俗	麗	約	顯	

## VI. 결 론

유신 전후기시의 풍격 형성에는 외부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런 점에서 그의 인생에서 작품 풍격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방에서의 유랑 생활은 창작 소재의 원천이자 풍격 형성의 동인이 되었고 마침내 후기시 특유의 풍격으로 육조 말기 시단에 그의 이름을 떨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남다른 처경이 그로 하여금 제량의 다른 시인들과는 달리 유속에서 벗어나 균계일학의 독특한 풍격을 갖춘 시인으로 거듭 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陳沆이 “초기의 아름다운 음조는 이미 전란에 모두 소실되었는데 세상에서 갖은 고난을 겪고서 그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sup>17)</sup>고 했던 말과 같은 의미이다.

16) 《庾開府集箋註·提要》(四庫全書珍本 209冊, 上海 商務印書館, 2쪽a: “華實相扶, 情文兼至”

17) 《詩比興箋》(台北: 藝文印書館, 1970), 210쪽 “早歲靡靡之元音 已燼於冥冥之劫火, 世厄其遇, 天就其名.”

청신자연 - 경물	청신	— 物 우연, 강제
청신고담 - 경물		
창량비장 - 영회	+ 寫	— 心 자각, 자유
강건주일 - 변세		
심엄혼성 - 술회	비량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신의 후기시에 이르러 제재의 범위가 확대되고 후기시 특유의 청신 자연, 청신 고담, 창량 비장, 강건 준일, 심엄 혼성한 풍격을 형성하게 된 것은 무수한 고초와 내면적 갈등을 통해 사물과 세계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에 깊이가 더해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탁월한 문학적 소양으로 작품의 제재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었던 유신은 자신의 독특한 정서적 내지 사상적 취향, 즉 향관지사를 더욱 다양하고 복합적인 풍격으로 형상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參考文獻>

倪璠 注, 許逸民 校點, 《庾子山集注》, 台北: 源流出版社, 1983.  
 吳兆宜 注, 《庾開府集箋註》, 四庫全書珍本 209冊, 上海: 商務印書館.  
 令狐德棻 等, 《周書》, 台北 鼎文書局 1970.  
 李延壽, 《北史》, 台北 鼎文書局 1970.  
 沈德潛, 《古詩源》, 台北 華正書局, 1975.  
 丁福保 編, 《歷代詩話續編》, 台北 木鐸出版社, 1993.  
 王夫之 等, 《清詩話》, 台北 西南書局 1976.  
 陳沆, 《詩比興箋》, 台北 藝文印書館 1970.  
 郭紹虞 編, 《清詩話續編》, 台北: 木鐸出版社, 1983.  
 葛曉音, 《八代詩史》,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9.  
 葛曉音, 《漢唐文學的嬗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0.  
 林怡, 《庾信》, 瀋陽: 春風文藝出版社, 1999.

- 吳懷東,《杜甫與六朝詩歌關係研究》,合肥:安徽文藝出版社,2002.
- 拙著,《庾信後期文學中鄉關之思研究》,台北:文津出版社,1994.
- 陳洪宜,〈庾信前期作品考辨〉,《文史》27,北京:中華書局,1986.
- 尹濤,〈庾信與南北朝後期詩歌〉,《中華同人學術論集》,北京:中華書局,2002.
- 拙稿,〈庾信詩風演變考〉,《第三屆魏晉南北朝文學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台北:文史哲出版社,1998.

### 〈中文提要〉

庾信的一生可分為前後兩個時期。前期是梁朝著名的宮體詩人,寫了不少綺麗、輕靡的作品。而後期則在南北朝度過的。這時生活經歷的豐富和對人生的深刻體驗,其作品的內容複雜而繁富,題材豐富而廣泛,因而形成了相反相成、迥然異樣的詩風。他的前後兩期作品在不同的歷史時期有不同的生活經歷和思想感情,文字的聲律和對偶的不同運用,使其作品,在前後期的比較上,顯現不同的風格。因而雖有一些出入,大致在前期的綺麗、清新的基礎上,把後期特有的風格加進去,從而造成了豐富多彩、絢麗多姿的詩風。

庾信後期詩風格的形成,主要是由於他生活環境的變化與所受北方風土人情的薰陶,誠如陳沆云庾信“早歲靡靡之音,已燼於冥冥之劫火,世厄其遇,天就其名。”庾信正由於表現他獨特的思想感情“鄉關之思”,完美地融合雅俗典麗繁約隱現等的言語風格,才達到了文質兼備、渾然一體的境界,從而具有清新自然、清新枯淡、蒼涼悲壯、剛健適逸、深嚴渾成等的藝術風格。庾信後期詩多種風格的形成跟題材範圍的擴大密切相關。庾信不但善於根據不同題材而變換風格,如寫物一類作品,主要體現為清新;寫心一類作品,主要體現為悲涼,而且呈現出多種風格并行不悖而又交織輝映的特徵。

주제어: 庾信, 後期詩, 鄉關之思, 清新, 綺麗, 悲涼